

“포근한 봄, 조선시대 전라도로 시간여행 어때요”

조선시대 전라도 육군 총지휘부였던 전라병영성의 역사와 호국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29회 전라병영성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역사가 살아있는 전라병영역사공원'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 체험과 공연이 결합된 참여형 역사문화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느끼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이 예상된다.

올해 새롭게 주목받는 공간은 성내에 위치한 '연희당'이다. 조선시대 성내의 휴식 장소이자 연희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연희당은 전라병영성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새롭게 모습을 갖췄다. 연희당에서 바라보는 성내 전경은 뛰어난 경관으로 사진 명소로 주목받고 있어 축제 기간 많은 관람객의

17~19일 강진 전라병영성축제...전통·체험·액션 풍성 성내 휴식공간 '연희당'·병마절도사 입성식 퍼레이드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18일 오후에 시작되는 '병영성 입성식 퍼레이드'다. 병마절도사가 말을 타고 입성하는 장면과 취타대와 기수들이 행렬을 이루며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다른 무대 프로그램 또한 풍성하다. 토요일에는 강진의 역사와 인물을 현대적으로 풀어내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조선을 만난 시간' 공연과 역사 스토리텔러 토크가 들려주는 '병영 역사 이야기', 축제 마지막 날에는 어린이를 위한 상어물쇼 '개리와 친구들' 공연과 풍물놀이 한마당이 준비돼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해졌다. 활쏘기 리그, 팀을 나눠 겨루는 페인트탄 서바

이별 게임, 말 위에서 펼쳐지는 마상무예 공연과 체험 등 다른 축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통과 놀이가 어우러진 미션형 프로그램 '병영성 게임 시즌2'가 무대에서 운영된다.

성과 위를 걸으며 이야기를 듣는 '성과 밟기', 직접 성을 쌓아보는 '성과 쌓기', 조선시대 의복을 입어보는 프로그램 등은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공부도 되고, 어른들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전라병영성축제는 역사 속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라며 "가족, 친구와 함께 방문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지난해 열린 전라병영성축제 모습.

사진제공=강진군청

해남 미래 이끌 인재 육성에 지역사회 동참

군, 단체·기업·개인 등 장학사업기금 기탁식

해남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기탁식에는 지역 단체와 업체, 개인 등이 참여해 장학기금을 전달하며 해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뜻을 함께했다.

직거래사업단(회장 김삼선)은 해남군 온라인쇼핑몰 '해남미소' 납품업체로 구성된 단체로, 설명회 꾸러미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이번 장학사업기금에 250만원을 기탁했다.

해남군농업인대상수상자회(회장 이유식)는 해남군 농업인대상 5개 분야(고소득 쌀, 원예·특용작물, 축산, 임업, 농산물유통·가공) 수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장학사업기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방영선씨는 우연한 계기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문구를 접

하고 이번 기탁에 참여, 100만원을 기탁했다.

또 비데·정수기 등 생활가전 제품 임대·판매 업체인 아름다운세상(대표 김동근)은 해남군과 장학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꾸준히 동참해 온 화산면 주민자치회장 김병승씨는 개인 자격으로 매년 100만원씩 장학사업기금에 기탁하고 있으며, 올해도 참여했다.

김병성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지역 단체와 기업,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장학사업기금 조성에 참여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러한 나눔이 모여 해남의 미래를 밝히는 큰 힘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해남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해남군청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민들의 정성이 모여 현재 장학사업기금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해남군은 2032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끌 인재 육성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목포대, 지역 우수 인재 공기업 취업 지원 '호응'

전남개발공사 채용설명회

목포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교내 학생회관 취업 강의실에서 재학생과 졸업(예정)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26학년도 전남개발공사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개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전남개발공사의 상용 채용에 대비해 재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남개발공사의 비전 및 조직 소개, 인재상 및 직무별 핵심역량, 2026년 채용 전형 절차와 전형별 준비 전략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남개발공사에 재직 중인 모교 출신 현직자가 직접 참석해 실질적인 피드백과 생생한 직무 경험, 입사 준비 노하우를 공유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현직 담당자로부터 직무 핵심 역량과 실제 근무 환경을 직접 들을 수 있어 공공기관 취업 목표 설정과 준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목포대 센터 관계자는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우수 공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채용 절차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4월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규직 채용 공고와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영암, 군민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영암군은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수혜 확대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적 여건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 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 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권도, 승마

등 다양한 종류의 민간·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에는 일반 13개소, 장애인 8개소의 가맹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등 5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매월 최대 10만5000원을

지원하며, 장애인 이용권은 5세부터 69세 까지 매월 최대 11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추가 신청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복지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해 광주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와 여행자의 ZIP(집) 일원에서 열린 '제4회 동명커피산책'의 모습



광주 동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예술의 거리'의 모습



주최



후원

